

중국-인도군, 국경서 유혈 충돌

중국과 인도군이 국경지역에서 유혈 충돌해 40여년 만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 1,2위 인구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양국의 추가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유혈 충돌 후 경계를 강화한 인도군 모습. 사진=financial times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쇄몽둥이와 돌맹이로 무장한 양국군은 지난 15일 저녁 무렵 히말라야산맥 자락 라다크 지역의 갈완계곡에서 충돌했다. 양국군은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국경지역을 순찰할 때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해질 무렵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인도 병력이 중국군과 마주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며 "싸움 도중 인도군 지휘관이 중국군에 떠밀려 협곡으로 추락했고, 이후 양쪽의 지원군까지 투입돼 600여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하게 싸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인도군 당국은 밝혔다. 인도 쪽에선 "이번 충돌로 중국 쪽에서도 43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쪽도 양국군이 "국경 지대에서 폭력을 동반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BBC 방송은 "양국이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벌여 사망자가 난 것은 지난 197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1962년 국경 분쟁으로 한 달여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양국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3,488km에 이르는 광대한 국경지역에서 자국군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여기고 순찰을 해오고 있다.

이탈리아, '관광산업 활성화' 보조금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이탈리아가 올여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휴가비를 지원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연 소득이 4만 유로(약 4만 5천 달러) 미만인 가구에 최대 500유로의 '여름휴가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는 150유로, 2인은 300유로, 3인 이상은 500유로로 차등화돼 있다.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가구는 이탈리아 내 숙박지 등에서 80%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세금 혜택이다.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구는 소득 조건이 충족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자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올여름에만 32억 유로가량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일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국경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쟁점 조약 가입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국,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폐쇄 연장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로 국경 폐쇄를 최소 7월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날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에 대한 현 조치를 7월21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데 다시 한번 합의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외교부도 트위터에 "멕시코와 미국이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육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해당 국경에서 여행, 여가 목적의 이동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의료 전문가, 항공사 승무원, 트럭 운전자 등 필수적 요원의 국경 이동은 허용된다.

북미 3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데 합의했으며, 이 조치를 이미 두 차례 연장했다. 3국은 30일 뒤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8천 9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3천 140km 길이의 미국-멕시코 국경은 전 세계에서 이동이 가장 많은 국경으로 꼽힌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p>*독점*오렌지 \$1,100,000 오렌카운티 전체가 보이는 숨막히는 전망을 가진 집 방5 화3 넓은대지 10000sqft 무조건 오피 쓰셔야 하는집 (시세보다 싸게 나왔습니다-타주 이주)</p>	<p>*독점*부에나팍 \$549,900 단층집, 대지 6816 방 4 화 2 1407sqft 포텐셜 너무 많은 매물 (리모델링 후 시세가 65만 이상 되는 매물입니다)</p>	<p>*독점*어바인 \$819,800 타운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노스팍스퀘어 모델 하우스 같은 타운홈 방3 화3 렌탈 투자용으로 너무 좋은 수영장 부가 있는 백맨하이슬 도보거리 low-HOA, No-Mello Roos</p>	<p>*독점*플러튼 \$485,000 2016에 지은 아주 넓고 탁트인 단독주택 이층집 2500 SQFT 방 4화 4 high ceiling, 시원한 거실 새부엌, 새카펫, 새페인트,최고의 학교 Move in/ Turn key, CSUF *only for Veteran</p>
<p>플러튼 \$499,000 대지 8200 단층집 방2 화1 리모델링 후 시세 65만 되는 가능성 풍부한 매물</p>	<p>플러튼 타운홈 \$490,000 방2+1den 화2 초중고 최고의 학교 앰버우드단지</p>	<p>플러튼 \$859,000 플러튼의 베버리힐스 라구나 레이크 근처 방4 화3 2290sqft 대지 8700 전체 마루 부엌 리모델링, turn key home</p>	<p>위티어 콘도 \$525,000 아직 마켓에 안 나온 집 방3 화3 1560sqft 1987년</p>

사무실 Lease

650sqft 부에나팍, 플러튼에서 8분거리 CPA, Accounting, Law office, Notary Public, Finacial Office 용으로 저렴한 렌트비 벨리뷰 + 로즈크랜즈

코로나로 인해 페이먼트가 힘드신가요?

은행과 협상을 도와드립니다.

모ডি피케이션, 숏세일도 가능합니다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
 Buena Park: 6561 Beach blvd
 Los Angeles: 3435 Wilshire blvd #1828